

두산생물자원(주)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극기행군(40km) 실시”

두산생물자원(대표 박근호)은 지난 4월 22일 충청남도 태안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선포식을 개최하고 전 사원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졌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구제역과 AI로 축산업이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국내 축산업의 재건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위해 이뤄졌다.



두산생물자원 영업부문 전 직원은 비가 오는 곳은 날씨 속에서 40km 도보행군을 한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 완수하였으며, 이러한 의지를 현장에 적용하여 축산업 조기 재건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

베링거인겔하임 플렉스콤보[®] 우수사례 시상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는 인겔백 씨코플렉스[®] 인겔백 마이코플렉스[®] 제품 홈페이지 “플렉스콤보” 사이트(www.flexcombo.co.kr) 오픈을 기념하여, 지난해 11월부터 2011년 1월 까지 플렉스콤보[®]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 베스트 농가 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PCVAD와 유행성 폐렴 예방을 위한 농장주들의 노력과 관심, 그리고 플렉스콤보[®]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우수한 효과와 편리성, 나아

가 성공적인 생산성을 달성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수상 농가로는 해진 영농조합, 명신 농장, 유정 농장, 은아 농장, 말밭 농장으로 총5개 농가가 선정됐으며,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공모전 수상 농가를 직접 찾아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였다.

최고상인 '플렉스콤보[®]상'에 선정된 해진 영농조합의 문중현 상무는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백신을 하지 않았을 때 생산성(증체량)에 영향이 컸기 때문에, 백신 횟수는 줄이면서도 편하게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플렉스콤보OR를 사용하게 되었다"며, "플렉스콤보[®]를 적용한 후부터 3%대의 폐사율로 개선됐음은 물론, 베링거인겔하임 동물약품의 PRRS 프로그램과 플렉스콤보[®] 프로그램까지 적용하고 있는 2011년 현재는 2%대의 폐사율을 유지하고 있어 그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그는 "농장 내 작업 인원도 기존 8명에서 6명으로 줄었으나 충분히 농장 관리가 가능해졌고, 예전에는 2주 당 휴가를 1번 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일주일에 한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만큼 수월해져 작업자의 업무 만족도도 높아졌다. 높은 질병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농장 작업시간도 단축된다는 점이 플렉스콤보OR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고 밝혔다.

폴커 북(Volker Bok)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 영업·마케팅 사장은 "플렉스콤보OR 성공 사례 공모전을 통해 우리 제품이 실제 농가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보다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라며, "이러한 성공사례를 농장 분들에게서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에



보내는 격려로 생각하고, 더욱 힘을 얻어 보다 혁신적인 동물약품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플렉스콤보[®]는 급성, 준임상형, 만성형 써코바이러스 관련 질환(PCVAD) 예방 백신인 인겔백 써코플렉스[®]와 마이코플라즈마 하이오뉴모니아(Mycoplasma Hyopneumoniae) 감염에 의한 유행성폐렴 예방 백신 인겔백 마이코플렉스[®] 두 제품을 혼합하여 접종하는 방법을 말하며, 두가지 백신을 혼합하여 단 1회 접종만으로 PCVAD와 유행성폐렴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어 이미 국내 여러 양돈 농가에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3~4주령의 자돈에 각각의 백신을 동량으로 혼합, 2ml를 1회 접종하면 접종 2주 후부터 방어가 개시되어 출하 때까지 관련 질병의 방어가 가능하다.

플렉스콤보[®]는 효과, 안전성, 접종 편의성 등 백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모두 갖춘 제품으로, 2010년 인겔백 마이코플렉스 출시와 함께 적용되기 시작하여 국내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천하제일사료

“행복한 목장 만들기”

천하제일과 함께 실현하세요!

- 천하제일사료, FMD 이후 목장의 방향을 제시하다

천하제일사료가 지난 4월 29일 충남 홍성에서, ‘행복한 목장 만들기’ 라는 제목으로 FMD 이후 목장이 나아갈 방향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해 화제다.

천하제일의 ‘행복한 목장 만들기’ 행사는 충청남도 서부지역 고객 성공을 담당하고 있는 제30판매본부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홍성은 물론 예산, 보령지역의 많은 목장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가져, 목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주제로 낙농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는 낙농PM 박정희 부장의 “FMD 이후, 낙농산업 현황과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시작됐다. 박정희 PM은 FMD 이후 유량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가축 매몰처분도 있지만, 겨울철 혹한의 스트레스와 유방염, 부제병 등의 소모성 질병다발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박정희 PM은 향후 유량부족 현상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귀한 몸(?)이 되신 목장에게 “지금은 대한민국 낙농산업에 큰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젖소의 건강 회복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유량을 극대화 할 것”을 당부했다.

천하제일사료 수의진단실험실의 주영호 수의사는 ‘FMD를 뛰어넘어’ 라는 제목으로 천하제일의 목장 질병 클리닝 서비스를 소개했다.

주영호부장은 ‘사료, 가축, 환경, 차단, 수질’을 5가지의 확신(오감)으로 표현한 ‘천하제일의 오감(五感)프로젝트 서비스’를 소개했다. 더 자세하게 ①사료 라인 내 곰팡이 오염 진단, ②입식가축의 주요 질병 감염 진단, ③농장환경 질병 분석 진단, ④무균 샘플링 팩을 통한 차단방역 준수, ⑤음수용 지하수 환경 오염 진단을 일컫는다. 목장 사장님들은 차별화 된 천하제일의 질병 클리닝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였고, 천하제일 서비스의 우수성이 입증되는 시간이 됐다.

이후 천하제일사료에서 홍성지역 고객 성공을 담당하고 있는 이덕영 부장의 ‘경쟁력 있는 목장 만들기’가 진행됐다. 이덕영 부장은 “최근 사료값 인상 및 조사료 값 폭등으로 생산비는 치솟고, FMD 이후 유량저하 및 소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목장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올리고 생산비를 낮춰야 함을 강조했다. ☺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행사장 전경